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고도지식집약형사회가 되어 19세기이래 지속되어온 산업주의 시대형 생활방식이 물러가고, 각종 첨단 기술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생산방식이 널리 채택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현대인들의 여가시간과 소득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인생관이나

단위어촌마을에 집중투자 지역별 특화사업 전개

대규모 거점지구와 소규모 단위지구로 구분

낙후된 어촌지역의 경제여건이나
생활환경을 가급적 손쉽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촌관광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고속의 교통운수시설이나 정보통신시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관광여가시설과 문화예술시설 등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분권화와 지방화가 중시될 것이며, 개성과 효율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WTO체제 아래 세계화와 지방화, 개방화와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21세기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인천국제공항 건설, 경부고속전철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을 다수 추진중에 있다.

한편, 우리사회의 선진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

이 광 회

한국관광연구원 개발연구실장

울적 산업구조가 정부와 국민의 협력으로 개선되어 진다면, 21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서구형 선진사회(大 觀光餘暇 社會)로 발전되게 될 것이며, 관광산업 또한 선진국과 같이 주요한 성장산업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특히 세계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21세기의 3대 고도성장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 교통운송산업, 관광산업을 전망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망 관광상품 방향

금후 국내의 중심적인 소비층은 소위 X세대라 지칭되는 신세대로서 기성세대인 중년층과는 의식이나 생활행태 등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더욱 현명해지고 요구사항도 많아질 신세대를 위해 관광상품의 개발이나 환대서비스의 제공기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인생의 가치를 단순한 근검절약, 집단 우선주의나 조직 우선주의, 순종과 자기희생 등에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富의 기준도 달라 더욱 여유있는 생활방식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New Rich의 중시)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환경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해 볼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소비자들의 선호 관광패턴을 사전에 파악해 관련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관광행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즐거움과 모험을 즐기려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Social Tourism(사회적 특별 프로그램) 여행 참여 집중
- 일반 대중관광상품에서 특화관광상품으로 수요의 변화 가속화
 - 여행경험의 증가에 따라 주말간산식 여행보다 자신만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행 선호
 - 여행객 각자가 예전의 경험을 능가하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여행시장을 세분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 좌우
- 모험여행의 급성장
 - 한때 모험심이 강한 극소수의 피짜들이나 즐기던 모험여행의 일반화 경향 (초호화 주거용 보트타기로 부터 야생마 타기,

뗏목여행, 바이킹여행, 알래스카 자연사 학습여행, 마라톤여행, 각종 레이스여행, 번지점프, 비상식품 맛보기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

- 자연 생태계여행(Ecotourism)에 관심 집중
 -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한 강렬한 욕구 분출(에콰도르의 열대운무림 산책, 갈라파고스 제도 탐방, 케냐 우마차 여행 등)
 - 미국인 자연생태여행자는 연간 6백만명 이상 (3천만명이 환경단체에 소속)
 - 원양에서의 고래생태관찰, 연어낚시여행, 오아시스투어, 히말라야투어, 남아프리카 오지투어 등
- 문화·예술·환경에의 관심 증대
 - 라이프스타일의 현장 관찰, 참여 여행상품 수요 증가
 - 특화된 관광체험으로 개성과 문화적 감수성 추구
 - 이문화의 생활양식, 건축, 음악, 오락 등에 대한 호기심 집중
- 선박여행, 대양순례, 무케도 항해의 쾌감을 느끼려는 여행 증가

-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여행도 분명히 자기몫을 키울 것이다.

- 특별 이벤트 참여 여행객 증가

- 산업박람회, 각종 전시회, 음악, 영화, 예술, 사상을 주제로 한 Festival, 각종 Sports Event, 역사적 기념축전, 박람회 등의 이벤트 활성화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급속히 변화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보다 빨리 파악하여 관광상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판매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관광자원 보유실태

어촌관광은 어촌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 및 인문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행동을 낳게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촌의 관광자원은 해양, 해안, 갯벌, 산천·수목, 기후 등의 자연환경과 어촌마을, 바다, 사찰, 어시장, 음식, 사적지, 생활양식, 전통민속행사, 문화예술활동 등의 인문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백사장, 낚시터, 방풍림과 수목, 어항관련 시설, 어업관련 산업시설, 풍어제나 당산제 등의 종교행사, 사찰 및 주요 사적지 등은 관광대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중에서도 관광개발연관 효과가 큰 자원은 漁港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유중인 관광대상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신세대형 관광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는 일일 것이다.

어촌지역의 전통적 마을, 산, 갯벌, 철새 서식지 등도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여겨지거나 어촌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에는 미약한 편이지만, 향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전망이므로 개발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역마다 이어져 오는 풍어제와 당산제 역시 개발 잠재력은 크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개발 잠재력이 있는 자연 관광자원과 산업 관광자원 및 문화 관광자원을 고루 갖춘 어촌의 비율은 전체 어촌중 30.8%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교적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을 보유한 어촌은 전체 어촌의 62.7%이며, 대부분의 어촌지역이 관광지 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극히 일부 어촌만이 관광지 개발을 반대하고

어촌지역의 관광자원의 분류

분 류	종 류
자연 관광자원	- 백사장, 낚시터, 갯벌, 기암괴석, 동굴, 하구언, 바다 갈라짐 - 방풍림, 수목, 화초, 철새 서식지, 기타 천연기념물
문화 관광자원	- 유형 : 사적지, 건축물, 사찰, 미술공예품, 국보, 보물, 기타 - 무형 : 전승놀이, 풍어제, 당산제, 음악, 어선·어구 제작, 기타
산업 관광자원	- 활어공판장, 해산물판매장, 해산물채취장, 양식장, 어선, 특산물 등 - 어항시설, 어선 접안시설, 여객터미널, 방파제 등 하부구조
위락 관광자원	- 해수욕장, 요트장, 숙박시설, 민박, 요식업, 캠프장, 관광유람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주요 이유는 어장의 황폐 가능성, 마을 질서의 혼란, 지역문화의 오염 그리고 자연환경의 오염 등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어촌의 관광지 개발은 1차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생산 방식을 고도화시켜 어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자립도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관광어촌의 지정 등으로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호·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내국인의 어촌관광 참여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타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이 어촌을 관광한 비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지난 1년간 어촌을 관광한 횟수는 평균 2회로 조사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대도시 거주자는 66.7%, 중소도시 거주자는 75.8%, 농촌지역 거주자는 60.7%의 비율로 어촌을 관광하였으며, 계층별로 구분하면 활동성이 높은 젊은 층, 여성보다는 남성,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어촌관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어촌관광 경험률은 일반국민의 관광참여율인 93.2%보다는 낮지만 다른 목적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어촌지역여행 목적은 주로 해수욕 등 해양관련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함이 대부분이며, 그 다음으로 바다와 해변 풍광 등 자연경관의 감상, 해산물 요리 맛보기, 드라이브를 겸한 휴식등으로 나타났다.

어촌관광에서 가장 선호하는 관광체제기간은 2박 3일이며, 선호하는 숙박시설은 민박과 야영이 74.3%로 나타났고,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선호도로 22.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가치관 변화, 주5일근무제의 확산, 관광여가생활의 중시 등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관광여행 중 어촌지역의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므로 어

촌지역을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관광사업 실태

정부는 어촌지역의 고용창출과 어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1990년부터 어촌관광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어촌지역에 횃집과 숙박시설, 휴게소 등 관광서비스 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의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진실적

'90 - '96년 동안 개소당 1억원 규모(융자 5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횃집, 휴게소, 낚시터 등 단위사업별로 투자 지원

문제점

- Hardware 시설위주의 개발 치중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0	'91	'92	'93	'94	'95	'96
개소	68	4	10	8	9	14	13	10
금액	6,273	420	637	823	815	1,278	1,300	1,000

- 외지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어촌지역 고유의 볼거리상품 개발 부진
- 광고나 PR 등 마케팅활동의 부족
- 어촌지역에 맞는 특징과 주제가 있는 관광시설의 개발 미약
-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의 미흡
- 먹거리 중심의 관광개발 치중
 - '96년까지의 지원 사업중 횡집 지원이 전체의 81.3%
 - 먹거리 개발을 위한 Hardware이외에 실질적으로 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진형 관광 Software 개발의 부진
- 사업지원 대상 및 지원주체의 한정
 - 현행사업은 개인을 배제한 어촌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어촌계 직영보다는 개인 임대형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임
- 사업의 분산지원에 따른 투자효과의 미흡
 - 관광개발 여건이나 개발 가능성 및 경제성에 관한 검토보다는 지역안배 문제 중시 등으로 투자가 분산되어 투자효과가 매우 제한적임

- 소규모 단위별 사업중심으로 투자되어 다수 주민의 참여가 부진하고, 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사회간접자본 개선 등과의 연계 미흡
-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의 애로
 - 자부담 비율이 50%로 참여어민의 부담 가중
 - 시·도의 지방비 보조 여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세부사항이 변경이 잦아 계획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음
- 참고로 현재 어촌지역 관광시설의 대표격인 민박업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계절성의 문제 : 어촌관광에서 민박업은 여름 한철 영업이라는 강한 계절성을 지니고 있음
 - 민박업의 영세성과 시설의 낙후성
 - 민박업의 단순성 : 대부분의 민박업은 방만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여 어려운 실정임(방 뿐만 아니라 숙박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어촌생활을 체험케 하는 복합관광 상품 개발 필요)
 - 민박요금의 불합리성 : 성수기와 비수기간의 요금차이가 심할뿐만 아니라 사

전 예상이 어려운 요금결정 방식으로 관광객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줌.

어촌관광 개선방향

낙후된 어촌지역의 경제여건이나 생활환경을 가급적 손쉽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촌관광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 동안 국내 어촌지역들이 개발자본의 부족, 교통접근성의 불량, 주민들의 개발의욕 미약, 기타 적극적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과 법규 등의 이유로 우수한 관광목적지로 개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역균형개발 정책과 경제성장에 따라서 전국의 교통체계가 효과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많은 도로가 확포장되고 있어 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이나 교통접근성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농어촌개발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농특세원을 마련하여 집중 투자하는 등 여러모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개발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촌관광 상품의 개발이나 일부기반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이나 정책적 지원여건은 계속 호전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